

창업기업의 혁신지향성이 성장열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오혜미 (세종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초빙교수)*

이채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진수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교수)***

국 문 요 약

전 세계적으로 혁신과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과거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Start-up America’, ‘Start-up Chile’, ‘Start-up Britain’ 등 스타트업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확산시켰다. 최근 창업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스타트업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이 ‘Scale-up America’, ‘Scale-up UK’, ‘Scale-up Denmark’ 등 스케일업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창업기업은 스타트업 단계를 넘어서 스케일업 단계로 진입해야 국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창업기업을 강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켜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창업기업이 스케일업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의 선행변수인 성장 열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국가의 경제발전단계 간, 기업가 간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국가차원에서 창업기업이 스케일업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GEM)의 일반성인조사 3.5년 미만의 초기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가경제발전단계를 혁신주도형, 효율주도형, 요소주도형 경제로 구분하여 R 3.5.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국가경제발전단계 간 비교를 위해 다층모형분석을 통해 연구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업기업의 혁신지향성과 성장 열망의 영향관계에 있어 국가경제발전 단계 간, 기업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경제가 발전할수록 기업가의 혁신활동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창업기업은 기업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동일한 환경 내에서 기업가가 얼마나 혁신 지향적인가에 따라 열망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창업기업의 혁신 지향성과 성장 열망의 영향관계에 있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국가경제발전 단계 간, 기업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 및 창업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국가경제발전 단계별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국가적 측면에서 실패에 대한 인식은 창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규명된 창업기업이 스케일업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성장열망에 영향을 미치는 검증된 요인을 국가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적합한 스케일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주제어: 창업기업, 혁신지향성, 성장열망, 실패에 대한 두려움, 다수준분석

1. 서론

창업의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창업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하게 되면, 국가적 측면에서 경제가 활성화 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가적 과제로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이 중요시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대기업 주도의 고용 없는 성장이 증가 되고, 점점 경제의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창업기업의 스케일업 역할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Hayton et al., 2002; Macaulay, 2003; Taylor & Wilson, 2012).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가혁신정책의 한 축으로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대한 중요성이 확산되었다.

과거에는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과제로 ‘Start-up America’, ‘Start-up Chile’, ‘Start-up Britain’ 등의 창업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확산되면서 창업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창업의 질적 성장을 통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조금씩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서, ‘Scale-up America’, ‘Scale-up UK’, ‘Scale-up Denmark’ 등의 스케일업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강준영, 2017). 그러나 국가마다 처한 환경과 경제발전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 혁신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해 나가는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활동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가혁신정책으로 창업활성

* 주저자, 세종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초빙교수, hyemioh@sejong.ac.kr

** 교신저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hlee@seoultech.ac.kr

*** 공동저자,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교수, sunny@cau.ac.kr

· 투고일: 2021-09-10 · 수정일: 2021-10-11 · 게재확정일: 2021-10-18

화를 전면에 내세워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왔고, 그로 인해 창업이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창업선진국에 비해 기회형 창업보다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고 생존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창업을 시작하기는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생존해야 하는 것이 창업의 현실이다. 대다수의 국내 창업기업들은 지속가능성과 성장성 측면에서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3-5년차에 죽음의 계곡(Death of Valley) 문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심연수 외, 2021). 창업기업이 배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기업의 생존과 지속적인 성장이다.

창업기업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케일업하게 된다. 스케일업 과정을 거치면서 창업기업은 혁신을 지향하게 되고 더욱 단단해지기 때문에, 혁신을 기반으로 한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스케일업 기업은 ‘고성장 기업(High-Growth Enterprises)’을 의미하며, 고용이 10명 이상이면서 매출 또는 고용이 3년간 평균 20%이상 성장하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초기 창업 단계에서 스케일업 단계로 성장해야 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 스케일업 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창업선진국의 통계를 살펴보면, 미국은 66.7%, 영국은 54%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33.4%로 나타났다(강준영, 2017). 그러나 창업기업은 성과 및 성장의 결과가 단기간에 달성되기 어려움이 있으며, 측정하기도 어렵다(엄현정 외, 2021). 창업기업이 스케일업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결정요인 중 하나가 창업가 또는 창업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성장열망이며, 이러한 성장열망으로 스케일업을 기대할 수 있다(Davidsson, 1991).

열망은 의도 또는 의지와 유사한 의미로, 행동의 예측변수로 볼 수 있다(Stam & Wennberg, 2009). 기업이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과 실제 성장 간 연관성이 있다고 나타났으며, 성장열망은 성장의 중요한 선행조건이라 할 수 있다(Stam & Wennberg, 2009). 따라서 창업가의 성장열망으로 향후 기업의 성장을 예측할 수 있다(Carsrud & Brännback, 2011).

초기 창업기업들이 스케일업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시장에서 도태되거나 폐업하게 될 것이므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는 성장열망이 중요하다(Ali et al., 2017). 성장열망은 기업의 얼마나 혁신을 지향하는지 뿐만 아니라 창업가 개인적 특성, 사회문화적 특성, 창업환경 및 인프라 등의 영향을 받는다(Zali et al., 2013). 그러므로 이와 같은 창업기업의 성장열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창업기업이 스케일업 기업으로 질적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창업기업들의 성장열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단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다면적인 현상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McKelvie & Wiklund, 2010). 대부분의 창업학 연구는 ‘국가수준’, ‘조직수준’, ‘개인수준’ 등 단일수준의 분절된 연구들로 진행되었다(남정민, 2017). 국가수준에서는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대한 정량적 현황을 국가 간 단순 비교한 연구

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이윤준 외, 2014). 조직 및 개인수준에서는 기업가정신 및 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져 왔지만 창업기업은 성장궤도가 일정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재무적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Ali et al., 2017). 이러한 단일수준의 연구들 중 거시적 관점인 국가수준의 연구에서는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미시적 관점인 조직수준과 개인수준의 연구에서는 원자적 오류(Atomistic Fallacy)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들은 다층연구를 통해 줄일 수 있다(손성철 외, 2013). 특히 창업과 연관된 현상은 단일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조직-개인 수준 간 상호관련성으로 행동을 이해해야 한다(Daft, 2004).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업의 성장열망을 개인-기업-국가 수준으로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실시하여 성장열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영향관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혁신지향성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국가의 경제발전과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함에 있어 혁신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혁신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으로(Fagerberg, 2005),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Hult et al., 2004). 이처럼 혁신은 창업에 있어 필수 요소이고(Drucker, 2002; Schumpeter, 1934), 창업기업이 성장을 위한 전략을 구축함에 중요한 요소이다(Hamel, 2002; Hitt et al., 2001). 조직적인 관점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것을 혁신지향성이라 하며, 조직 내에 새로운 제품/서비스 또는 프로세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의 역량을 의미한다(Hult et al., 2004). 이러한 혁신지향성은 거시적 차원에서 혁신을 통해 과학, 기술 및 시장 구조 등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미시적 차원에서는 기업의 기존 기술, 지식, 역량, 전략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혁신지향성은 기존 제품/서비스 또는 프로세스에 비해 얼마나 ‘새로움’의 정도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Garcia, et al., 2003). 높은 수준의 새로움을 가진 제품/서비스는 매우 혁신적인 것으로 의미할 수 있으며 반면 낮은 수준의 새로움은 혁신이 낮은 것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Garcia, et al., 2003). 혁신의 새로움은 기업의 관점뿐만 아니라 고객의 관점에서 새로운 것으로 인식하는 것, 산업의 관점에서 새로운 것, 시장의 관점에서 새로운 것 또는 처음 도입된 것에서도 새로움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Garcia, et al., 2003). 이와 같이 혁신지향성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기업의 성향을 의미하며, 전 세계 시장에서 새롭고 매력적인 제품/서비스 및 기술의 출시할 수 있도록 촉진시킨다(Lumpkin & Dess, 2001). 기업이 성과를 창출하고 생존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혁신이 있어야하며, 기업은 경쟁우위를 확보

하고 조직을 재구조화하고 성장하는데 있어 혁신이 핵심요소로 작용한다(Lumpkin & Dess, 2001). 혁신을 통해 파괴적인 새로운 발명품이 탄생되며,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새로운 산업이 창출된다(Garcia, et al., 2003).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기업들이 실제 산업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경제발전 전에 기여한다(Hamel, 2002). 기업이 목표하는 성과를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신하는 것이다(Cottam et al., 2001). 따라서 기업이 혁신을 지향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적인 생존과 성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Lumpkin & Dess, 2001). 기업이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있어 기업의 혁신역량은 가장 중요한 원동력 중의 하나이다(Çakar & Ertürk, 2010).

혁신지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술, 인적자원 관리, 자원배분 등 조직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Simpson et al., 2006). 기업의 혁신지향성은 단순한 기술혁신이 아닌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전략적 역량을 의미한다(Martin & Salomon, 2003). 따라서 혁신지향성이 높은 기업은 점진적 혁신뿐만 아니라 급진적 혁신을 통해 더 빠르게 성장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Simpson et al., 2006).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 새로운 프로세스 구축, 새로운 시장 개척, 새로운 공급자원 발굴 및 확보, 새로운 조직 운영방안 구축 등을 혁신활동이라 할 수 있다(Johannessen et al., 2001; Szirmai et al., 2011).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 혁신의 과정과 기술의 변화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으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Beaver & Prince, 2002). 스타트업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혁신지향성이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Beaver & Prince, 2002).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성공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결합하는 것도 기업의 혁신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Branzei & Vertinsky, 2006). 창업기업은 지속가능하고 수익성이 높일 수 있는 비즈니스로 발전시키기 위해 혁신역량을 함양하고자 한다(Beaver & Prince, 2002).

혁신적인 기업은 더 많은 제품/서비스를 생산하기 보다는 현재보다 더 나은 품질의 제품/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Simpson et al., 2006). 창업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거나 새로운 고객을 확보해야 된다(Fagerberg, 2005; Kyläheiko et al., 2011).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들은 혁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Johannessen et al., 2001). 혁신은 장기적으로 생존 및 성장하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기업들은 혁신이 전략적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받아들이고 있다(Nijssen & Frambach, 2000).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속화될수록 혁신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2.2. 성장열망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ur: TPB)에 따르면, 의지에 의해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Ajzen, 1991). 대부분의 창업가들은 일반 사람들 보다 더 높은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하고자 하는 야망은 실제로도 창업기업 성장의 선행조건이 된다(Hermans et al., 2015).

기존 이론 및 실증적 연구를 통해 기업의 성장에 대한 의지(Intention) 또는 열망(Aspiration)은 향후 기업이 성장함에 있어 중요한 예측변수라는 것이 이미 검증되었다(Davidsson & Wiklund, 2006; Stam & Wennberg, 2009). 또한 기업이 성장시키고자 하는 야망이 큰 창업가들일수록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거시 경제 발전에 핵심 역할을 한다고 최근 연구에서도 검증되었다(Stam et al., 2011).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은 창업가들에게 일시적으로 긴장감을 주며, 이러한 긴장감은 기업이 이루고자하는 이상적인 비전과 현재 상황 간에 나타나는 긴장감이다(Stam & Wennberg, 2009). 창업가의 열망은 기업의 성공과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성장과 관련한 연구들에서, 창업 후 4년간 창업가의 성장열망과 실제 기업의 성장은 중요한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avidsson & Wiklund, 2006). 특히 초기 창업기업은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창업가들의 성장열망의 영향을 받는다(LeBrasseur et al., 2003).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열망은 현실과 이상이 이질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기업이 보유한 조건 및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지 때문이다(Dutta & Thornhil, 2008). 창업가는 기업의 규모와 영역의 성장을 예측하고 미래 성장의 수준을 결정해야 하며, 이러한 창업가의 결정은 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Manolova et al., 2012). 그러므로 성장열망은 창업가가 목표로 설정하고 행동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더 나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Bandura, 2001).

기업의 성장에 선행요인인 창업가들의 성장에 대한 야망에 대한 정의, 측정도구 등에 대한 연구들이 부족하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창업가들의 의지를 기업가정신 열망(Aspiration Entrepreneurship), 성장의도(Growth Intention), 성장태도(Growth Attitudes), 성장선호도(Growth Preferences), 높은 잠재적 기업가정신(High-potential Entrepreneurship) 등의 변수들에 대한 유사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Hermans et al., 2015).

성장에 대한 야망이 큰 창업가는 “최대한으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가적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으며, 기업의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높은 열망은 새로운 제품·서비스·프로세스·조직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하여 가치창출을 극대화 하는 행동으로 발현된다(Stam et al., 2011). 창업관련 패널연구들에서도 창업가의 성장열망을 측정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가정신모니터(GEM)에서도 18-64세 성인 인구 중 초기 단계의 창업가를 대상으로 향후 이내

에 최소 20명의 직원을 고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활동을 측정한다. 또한 기업가적 역량 패널 연구(Panel Study of Entrepreneurial Dynamics; PSED)에서는 향후 5년차에 예상되는 총 매출·수익·수수료 등을 측정한다(Cassar, 2006). 성장과 관련된 기존연구들에서 성장 동기와 성장의 관계에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들이 있다. 창업가들의 성장에 대한 열망은 성장 동기로 볼 수 있으며, 성장 동기는 창업기업의 성장에 대한 예측변수이다.(Baum & Locke, 2004; Delmar & Wiklund, 2008).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성장 동기의 관계에 있어 동기의 강도는 의사결정 시 개인의 통제 정도, 즉 성장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영향을 받는다(Delmar & Wiklund, 2008). 기업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창업가 개인이 의도하는 결정에 따라 좌우된다(Wiklund & Shepherd, 2005). 그러나 기업의 성장을 위해 적합한 전략을 구축하고 성장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역량을 창업기업 또는 창업가가 갖추고 있지 않다면, 성장 동기와는 무관하게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Wiklund & Shepherd, 2005). 새로운 기업의 탄생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친다(Acs et al., 2008; Gilbert et al., 2006). 경제성장의 주요 목표는 지역의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며, 대기업은 성장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는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한다(이민화, 2015). 영국의 중소기업 관련 연구에서 중소기업은 유연성과 혁신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일자리 창출 및 실업률을 감소시킨다는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Gray, 2006). 전 세계적으로 혁신기반 경제를 추구하며, 이에 중소기업은 혁신,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을 창출하는데 기여가 크다(Acs et al., 2008). 따라서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서 창업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2.3.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이 보유한 특성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낮은 사람일수록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창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Mitchell & Shepherd, 2011; Wood et al., 2014).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문화적 인식의 관점에서의 성취동기로서 개인이 창업 또는 기업가적 활동을 시작하는 이유라 할 수 있다(Cacciotti & Hayton, 2015).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위험을 회피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포함한다(Kollmann et al., 2017).

불확실성 하에서 창업가들은 현실적인 마주한 상황과 손실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려움이 증가한다(Loewenstein et al., 2001).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재정적 손실과 정신적 상태를 해할 수 있고 부정적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감정이다(Anwar et al., 2014). 선행연구들에서는 경제학적 관점, 사회심리학적 관점, 심리학적 관점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Cacciotti & Hayton, 2015). 경제학적 관

점에서는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기업가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renius & Minniti, 2005).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된다면, 창업을 시작하게 될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Minniti & Nardone, 2007).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사회 환경의 보상에 대한 관심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보았고, 이를 사회 문화적 특성이라 보았다(Vaillant & Lafuente, 2007). 실패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는 실패를 수치스러운 경험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규범에 영향을 받으며(Hessels et al., 2008), 이는 위험을 회피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Cacciotti & Hayton, 2015).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실패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되는 부정적인 감정이며, 이러한 감정은 심리적 및 행동적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Mitchell & Shepherd, 2011; Wood et al., 2014).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감정적 경험을 측정하는 것인지 경험하는 성향을 평가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Cacciotti & Hayton, 2015), 기업가적 활동을 함에 있어 장벽이다(Mitchell & Shepherd, 2011).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 활동의 결정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McMullen & Dimov, 2013), 성공을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와 반대되는 동기로 정의할 수 있다(McClelland et al., 2005). 이는 ‘실패를 피하고자 하는 성향’,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수치심과 굴욕감을 받아들이는 능력’, ‘목표를 달성하는데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실패에 대해 불안해하는 성향’을 의미한다(McClelland et al., 2005).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정의하자면, 실패로 인한 혐오적 결과에 대한 신념이라 할 수 있다(김수진 외, 2016).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활성화 되면, 고통스러운 수치심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인지력이 증가한다(Kollmann et al., 2017). 두려움은 부정적인 자극을 회피하는 행동, 실행을 미루는 행동으로 나타난다(Van Gelderen, et al., 2015).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성공하고자 하는 동기보다 더 클 때, 실패와 관련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자 직면한 상황을 회피하게 된다(Kollmann et al., 2017).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생성되고, 활성화되고, 창업활동에 있어 개인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실패에 직면했을 때, 실패를 회피하려는 동기가 활성화 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행동이 주도된다(Kollmann et al.,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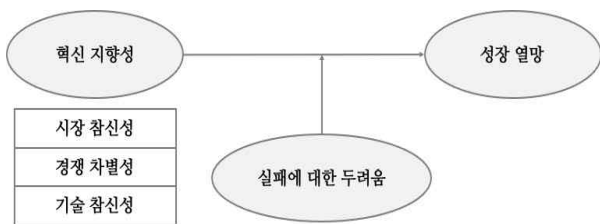
창업을 성공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 실패는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Aldrich, 1999).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창업을 함에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수반되는 위험을 식별할 수 있다(Van Gelderen, et al., 2015). 창업가는 자신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Anwar et al., 2014). 실패에 대한 경험이 또 다른 창업에 도전하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지만(Flores-Romero, 2004), 그동안 실패에 대한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어 왔다(Cacciotti et al., 2016). 창업의 성공만을 인식하는 문화와 창업의 실패를 개인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사회적 부정적인 시선은 창업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키워왔다(김수진 외, 2016).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을 실패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를 두려워하기는 경향이 있다(Kollmann et al., 2017).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업으로 인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막연하게 창업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Arenius & Minniti, 2005).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심리적 장벽은 창업자들이 창업을 시작하고 기업가적 활동을 하는데 있어 방해가 된다(Vaillant & Lafuente, 2007).

III. 연구 방법

3.1. 연구의 모형 및 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창업기업의 혁신지향성과 성장열망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창업기업의 성장열망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뿐만 아니라 창업가 개인의 특성 및 주변 환경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Acemoglu et al., 2006; Gries & Naude, 2010; Mueller et al., 2012). 창업은 창업가 개인의 특성 또는 창업기업의 일차원적 수준에서 관계를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차원 수준에서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창업기업의 성장열망에 미치는 영향이 창업가 개인수준과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위계적 구조를 반영한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통해 그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GEM)는 국가의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요소주도형 경제, 효율주도형 경제, 혁신주도형 경제 등 세 집단으로 국가들을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단계의 경제발전도에 따라 국가수준과 창업가 개인수준에서의 다층적 관점에서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1.1. 혁신지향성과 스케일업 열망과의 관계

창업가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장에 빠르게 반응하고 적응해야 하며, 유연하게 대처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창업기업은 필수적으로 혁신지향성이 높아야 하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윤병선·서영욱, 2016). 창업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지향해야 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Hyytinen et al., 2015).

선행연구들을 통해 기업은 차별화, 원가우위, 집중화, 기술혁신, 마케팅 차별화, 품질우위 등의 혁신을 지향하면(Hyytinen et al., 2015), 그 결과로 매출성장(Kelley & Rice, 2002)과 일자리 창출(Goedhuys & Sleuwaegen, 2010)을 하면서 다음단계로 성장하게 된다고 검증되었다. 창업을 함에 있어서 모호성이 때때로 발생하고, 특히 초기 창업기업은 성장률을 단기간에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므로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예측할 수 있다(Bosma & Schutjens, 2009; Stam & Wennberg., 2009). 창업가의 동기와 의지가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Davidsson, 1991), 성장열망은 기업의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H1: 창업기업의 혁신지향성은 성장열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국가경제발전단계 간, 기업가 개인 간 차이가 있다.

3.1.2.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조절효과

창업활동에 있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장애물의 역할을 한다(Kollmann et al., 2017).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질수록 창업자들은 위험을 극대화되고 성공의 가능성은 최소화로 인지하게 되어 창업에 대한 의지가 낮아지고, 기업을 운영하려는 의지 등 창업 활동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나타난다(김수진 외, 2016).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가의 기회인식, 창업성과, 창업행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로 검증되었다(Mitchell & Shepherd, 2011). 그 외에도 창업의지, 기업가정신, 성공에 대한 기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나타났다(Arenius & Minniti 2005). 창업활동에 있어 위험과 장애요소에 직면하면, 창업가는 자신의 이전 실패경험과 관련된 결과를 다시 경험한다고 느낀다(Conroy et al., 2002). 그러므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져 이전의 경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회피 반응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Wood et al., 2014).

이와 같은 회피 반응은 행동으로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위험과 장애물로 인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져 창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Kollmann et al., 2017). 이러한 창업에 있어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과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H2: 창업기업의 혁신지향성이 성장열망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기업가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조절효과가 국가 경제발전단계 간, 기업가 개인 간 차이가 있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3.2.1. 혁신지향성

성장과 생존을 위해서는 기업에게 혁신은 필수적 요소이며, 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혁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윤중록·김형철, 2009). 혁신지향성은 창업기업의 행동과 실천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서비스, 프로세스 등을 개발하거나 개선하는 역량으로 정의된다(Hult et al., 2004).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품/서비스로 구현하거나 경쟁자보다 새로운 것을 먼저 적용하는 역량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Garcia et al., 2003).

본 연구에서의 혁신지향성은 제품/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측정도구로는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GEM) 연구의 측정 항목을 사용하였다. 혁신지향성의 하위요인으로는 시장참신성(Market Newness), 경쟁차별성(Competitive Uniqueness), 기술참신성(Technology Newness)으로 구성된다. 시장참신성은 제품/서비스를 고객들이 얼마나 새롭게 인식하고 있는지 정도이며, 경쟁차별성은 시장에서 제품/서비스가 경쟁자들보다 얼마나 우위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도이며, 기술참신성은 현재 제품/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이 시장에 통용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3.2.2. 성장열망

창업기업의 성장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창업기업의 성장을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창업기업의 성장은 측정시점과 측정방법이 경우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필요가 있고, 성장을 측정하는데 있어 창업의 단계별마다 중요한 요인들이 다르다(Dutta & Thornhil, 2008). 특히 초기 창업기업은 성장을 측정하기 어렵고 대부분 소규모이면서 매출이 높지 않기 때문에 더욱 측정이 어렵다. 기존 연구에서도 성장의 측정도구로 주로 중견기업 이상에 측정 가능한 재무적 측정도구로 창업 기업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성장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성과 측정 도구가 아닌, 창업기업의 성장열망(Growth Aspiration)을 측정하여 창업기업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장열망의 측정도구로 글로벌기업가정신 모니터(GEM)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문항을 사용하였다. 성장열망은 창업기업이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 기대, 의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창업가를 제외하고 향후 5년 후 예상 고용인원을 측정하였다.

3.2.3. 실패에 대한 두려움

창업가는 이전의 실패 경험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더 혁신적인 기회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창업가들에게 창업을 촉진시킬 수 있다(Ucbasaran et al., 2009). 이런 두려움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심각한 위협으로부터 긍정적 자극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Morgan & Sisak, 2016).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이 속한 국가의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인식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Gómez-Araujo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사업을 시작할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창업을 망설여지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표 1> 변수의 측정항목

변수	측정항목
시장 참신성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그동안 시장에서 보기 드문 새로운 제품/서비스로 인식하는지의 정도
경쟁 차별성	현지 기업과 같은 또는 유사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존재 여부
기술 참신성	현재 주력 제품/서비스에 사용되는(필요한) 기술이 시장에서 통용되는데 소요된 기간의 정도
성장열망	기업가를 제외하고 향후 5년경과 후에 예상되는 고용: 일자리 창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업을 시작할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망설여지는지의 여부

3.3. 연구방법

조직은 개인과 집단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성 자체가 다수준(Multi-level)이라 할 수 있다(박원우·고수경, 2005). 이러한 전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제발전예 따라 국가라는 집단에 내재된 창업가를 개인으로 보는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절변수와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는데 다층모형은 효과적이며(Kenny et, al., 2006), 하나의 모형으로 창업기업의 성장열망에 대한 영향관계를 검증할 수 있다(West & Kenny, 2011). 본 연구에서는 다층모형 분석을 위해 R 3.5.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3단계로 분석하였다. 1단계는 설명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기초모형인 무조건모형(Unconditional Model) 분석을 통해 다층모형 적용이 타당한지 확인하였고, 연구모형은 각각의 연구문제에 따라 2개의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2단계로는 국가경제발전단계에 따른 특성의 설명력을 산출하였고, 3단계로는 국가경제발전단계 내 창업가 개인수준의 특성에 따른 특성의 설명력을 산출하였다.

IV. 실증 분석 결과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1999년부터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GEM)에서는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개인의 창업활동에 대한 태도, 활동, 열망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5년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GEM)에서 62개국의 자국민 중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연구의 표본으로 설정하였다. 총 62개국에서 181,281개의 응답이 회수되었으며, 그 중 현재 기업

을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3.5년 미만의 초기 창업가의 표본을 선별하였다. 본 연구의 변수와 관련된 측정항목에 응답하지 않은 표본을 제외하였으며, 총 52개국의 14,185개 응답을 최종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국가의 경제단계별로 표본을 살펴보면, 요소주도형경제 국가는 총 8개 국가 2,865명(20.20%), 효율주도형경제 국가는 총 24개 국가 7,427명(52.35%), 혁신주도형경제 국가는 총 20개 국가 3,893명(27.45%)로 나타났다.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세 집단 모두 성별에 있어 남성이 더 많게 나타났다. 요소주도형 국가는 남성 1,089명(57.5%), 여성 805명(42.5%), 효율주도형 국가는 남성 2,893명(57.4%), 여자 2,146명(42.6%), 혁신주도형 국가는 남성 2,697명(63.9%), 여성 1,525명(36.1%)로 나타났다. 그 밖에 연령, 학력, 산업분야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표 2>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표 2>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구분	요소주도형 경제		효율주도형 경제		혁신주도형 경제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532	10.8	4,284	30.2	2,441	17.21
	여성	1,333	9.4	3,143	22.15	1,452	10.24
연령	18-24세	535	3.77	1,162	8.19	367	2.59
	25-34세	1,011	7.13	2,296	16.19	1,037	7.31
	35-44세	694	4.89	1,922	13.55	1,162	8.19
	45-54세	404	2.85	1,299	9.16	846	5.96
	55-64세	218	1.54	642	4.53	429	3.02
	65세 이상	3	0.02	106	0.75	51	0.36
학력	중학교졸업이하	1,250	8.66	1,930	13.51	655	4.64
	고등학교 졸업	776	5.5	2,756	19.55	1,097	7.78
	대학교 졸업	822	5.83	2,511	17.82	2,060	14.62
	대학원재학 졸업이상	10	0.07	213	1.51	45	0.32
산업 분야	생산업	515	3.69	405	2.9	208	1.49
	운송업	574	4.11	1,569	11.24	701	5.02
	서비스 산업	158	1.13	888	6.36	1,074	7.69
	소비자 중심산업	1,551	11.11	4,486	32.13	1,831	13.12
총계	8개국		25개국		19개국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2,866	20.20	7,427	52.35	3,983	27.45	

4.2. 성장열망의 무조건모형 분석결과

다층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개인수준의 변수를 합산하여 집단수준의 구성개념으로 사용가능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무조건모형(Unconditional Model)을 분석해야 하므로(박원우·고수경, 2005), 성장열망의 총 변량 중 국가의 경제발전단계 간 변량과 창업가 개인 변량의 구성비율을 분석하였다.

성장열망의 무조건모형 분석 결과, 고정효과(Fixed effect)는 종속변수인 성장열망의 전체 평균으로 2.25로 나타났다. 무선효과(Random effect)는 성장열망의 변량 구성으로 국가의 경제

발전단계 간 변량은 0.283, 국가의 경제발전단계 내 창업가 변량은 0.770으로 나타났다. χ^2 값은 33012.18(df=3)로 0.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가경제 발전에 따라 창업기업의 성장열망 수준의 평균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창업기업의 성장열망을 설명함에 있어 조절변수들을 투입하여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성장열망의 급내상관(ICC)값은 0.27로 기준치 0.05이상으로 다층모형 분석이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형 내 변수의 신뢰도가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3> 성장열망의 무조건모형 분석 결과

구분	계수	표준오차
고정효과(Fixed effect)		
	2.25***	0.04
무선효과(Random effect)	경제발전단계 간 변량	0.283
	경제발전단계 내 변량	0.770
	χ^2	33012.18
	자유도(df)	3
	p-value	0.000
급내상관(ICC)	0.27	

*** $p < .001$

4.3.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설명변수를 포함한 조건모형(Random-Coefficient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수준의 설명변수를 포함한 조건모형 1(Model 2: 다층모형분석)을 분석하여, 기업이 개인의 요인이 창업기업의 성장 열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창업가 개인수준과 경제발전단계의 국가수준의 설명변수를 모두 포함한 조건모형 2(Model 3: 무선계수모형)를 분석하여, 국가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성장열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또한 조건모형 1과 조건모형 2에서 기업의 혁신지향성과 성장열망의 영향관계에 있어 조절변수인 창업가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4.3.1. 혁신지향성과 성장열망 간의 영향관계 조건모형 분석결과

국가경제발전단계 수준에 따라 창업기업의 혁신지향성이 성장열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혁신지향성이 성장열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222, p<0.001$). 국가경제발전단계에 따라 혁신지향성이 성장열망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결과와 같이 국가의 경제발전단계와 창업기업의 혁신지향성이 성장열망에 있어 정(+)의 영향관계를 지지한다(Wong & Lee, 2005).

개인수준에서 가설을 검증한 결과, 혁신지향성이 성장열망에 정(+)의 영향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254, p<0.001$). 이 결과는 창업기업의 혁신지향성이 성장열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창업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Model 1, Model 2, Model 3의 AIC, BIC값이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 혁신지향성과 성장열망의 영향관계

	영모형 (Model 1)		국가경제발전 간 차이 (Model 2)		창업가 간 차이 (Model 3)	
고정효과(Fixed Effects)						
	계수	t-value	계수	t-value	계수	t-value
Intercept	2.254	57.235***	2.255	57.399***	2.265	58.798***
혁신 지향성			0.222	15.299***	0.254	9.050***
무선효과(Random Effect)						
Intercept	0.283		0.282		0.276	
혁신 지향성					0.163	
Residual	0.770		0.763		0.760	
χ^2 (df)	33012.18(3)		32786.66(4)		32726.78(6)	
AIC	33018.18		32794.66		32738.78	
BIC	33040.86		32824.90		32784.14	
기술통계						
	요소주도형		효율주도형		혁신주도형	
혁신지향성	1.47		1.61		1.53	
성장 열망	2.15		2.31		2.22	

+p<.1, *p<.05, **p<.01, ***p<.001

4.3.2.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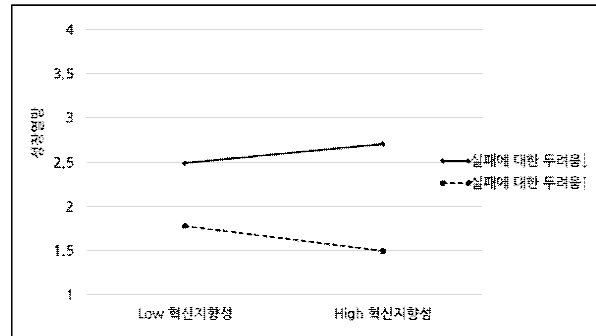
국가수준과 개인수준에서 창업기업의 혁신지향성과 성장열망의 관계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조절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국가경제발전단계 수준에서 고정효과를 분석결과, 혁신지향성이 성장열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조절효과는 국가경제발전단계 간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534, p<0.01$). 개인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무선계수모형을 분석한 결과, 혁신지향성이 성장열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조절효과는 창업가 간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beta=-0.534, p<0.01$). 본 연구에서 Model 1, Model 2, Model 3의 AIC, BIC값이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표 5> 혁신지향성과 성장열망 간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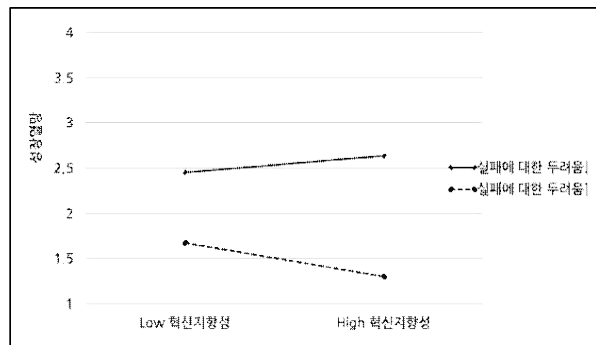
	영모형 (Model 1)		국가경제발전 간 차이 (Model 2)		기업가 간 차이 (Model 3)	
고정효과(Fixed Effects)						
	계수	t-value	계수	t-value	계수	t-value
Intercept	2.197	35.966***	2.235	40.784***	2.227	45.268***
혁신지향성			0.229	13.545***	0.198	2.251*

실패에 대한 두려움			-0.120	-7.850***	-0.109	-4.240***
혁신지향성* 실패에 대한 두려움			-0.534	-1.629**	-0.600	-1.120*
무선효과(Random Effect)						
Intercept	0.105		0.094		0.084	
혁신지향성					0.149	
실패에 대한 두려움					0.036	
혁신지향성* 실패에 대한 두려움					0.073	
Residual	0.826		0.818		0.815	
χ^2 (df)	34844.82 (3)		34576.61 (6)		334468.32 (15)	
AIC	34850.82		34588.61		34398.32	
BIC	34873.50		34633.97		34611.72	
기술통계						
	요소주도형		효율주도형		혁신주도형	
실패에 대한 두려움	0.30		0.28		0.26	

+p<.1, *p<.05, **p<.01, ***p<.001



<그림 2> 혁신지향성과 성장열망 간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호작용(국가경제발전단계 간 차이)



<그림 3> 혁신지향성과 성장열망 간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호작용(기업가 간 차이)

V. 결론 및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추세이다(Valliere & Peterson, 2009). 이러한 시점에서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의 선행요인들에 대해 연구한 본 연구결과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및 실무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본 연구는 초기 창업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다차원 모델을 제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침체가 지속되면서,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이 중요시 되고 스케일업의 영향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창업기업이 많이 창출될수록 국가의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이미 검증되었지만(Cassar, 2006), 창업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 하는 것이 실제 경제성장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다(강준영, 2017). 그러나 기업의 성장에 대한 연구는 창업기업의 특성이 고려된 연구보다 대기업 위주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Carsrud & Brännback, 2011), 창업기업의 성장에 대한 연구는 한계가 있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측정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나타났다(Wiklund & Shepherd,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스케일업할 수 있는 선행변수로 창업기업의 성장열망에 대한 다차원의 모델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글로벌 패널데이터를 연구표본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객관화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GEM)의 창업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기업의 성장열망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창업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실증적 연구를 위해 다수의 데이터 또는 글로벌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움이 있다(이운재,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분야에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전 세계 창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의 객관성을 확보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성장열망과 영향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셋째, 국가의 상황에 적합한 스케일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창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많은 국가에서 양적 성장을 위한 창업생태계는 조성이 되었지만, 질적 성장을 위한 스케일업 생태계 조성은 아직 미흡한 단계이다. 국가경제발전단계 수준과 국가 내 창업가 수준에서 창업활동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국가의 상황에 적합한 스케일업 생태계를 조성 위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효율주도형 경제발전단계의 국가들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효율주도형에 속하는 국가들이 창업 등의 혁신활동을 통해 혁신주도형 국가로 성장하고자 하기 때문이다(GEM, 2018). 이는 혁신지향성과 성장열망이 높은 창업가일수록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문성배·전현배, 2008). 대체적으로 혁신주도형과 효율주도형에 속하는 국가들이 혁신지향성이 더 높고, 동일 국가 내에서도 창업가의 혁신지향성 정도에 따라 성장열망에 차이가 있다. 창업기업의 혁신적인 활동이 활발할수록 국가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김형준 외, 2020). 그러므로 요소주도형에 속한 국가들은 창업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혁신지향성을 함양하고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넷째, 국가차원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조성해야 한다. 창업활동을 함에 있어 실패에 대한 두

려움은 창업가들에게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가의 상황에 따라 창업가와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실제 국가경제발전단계 간 창업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으며, 특히 국가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Davidsson, 1995). 이는 국가마다 실패에 대한 수용이 다르고, 실패를 바라보는 외부 환경은 창업가 개인의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Autio & Pathak, 2010).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혁신주도형에 속한 국가일수록 창업가들이 느끼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낮았고, 효율주도형, 요소주도형 국가들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가의 창업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은 창업가들이 창업활동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이운재, 2005). 창업가들에 대한 사회에 형성된 인식은 창업가들이 창업을 결심하고, 창업활동을 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GEM, 2018). 창업가의 성공 및 실패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창업에 대해 친숙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창업가들이 더 혁신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실패를 수용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가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 및 실무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창업단계별에 따라 차이를 통해 창업기업 성장 모델을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가수준과 창업가 수준에서 창업활동에 대해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과 환경의 특성에 따라 창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발생하지만, 창업단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GEM) 연구에서는 창업단계에 따라 태동기 창업활동, 초창기 소유경영활동, 안정기 소유경영활동 등으로 구분하고 조사하고 있다. 향후 이 창업단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연구가 된다면, 창업기업의 성장 모델이 고도화 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종단적 연구를 통해 객관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횡단적 연구는 일정 시점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광범위한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창업가들의 특성과 상황의 동태적 변화를 반영할 수 없었다. 특히 창업은 시대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종단적 연구를 통해 현재로부터 미래를 추적해서 인과관계를 확인한다면 연구가 깊이 있어 질 것이다. 또한 창업기업은 단기간에 두드러진 성장이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종단연구를 통해 창업기업의 진행과정이나 변화를 측정한다면 연구의 객관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REFERENCE

- 강준영(2017). *일자리창출을 위한 스타트업의 스케일업과 시사점*. Weekly KDB Report.
- 김수진·한정화·이상명(2016). 예비창업자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1(3), 49-61.
- 김형준·민태기·황정복·다이나실라·오근엽(2020). 국가 특성이 창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실증 분석. *벤처창업연구*, 15(6), 55-65.
- 남정민(2017). *창업단계별 기업가정신 및 창업생태계 인식에 대한 연구: GETR를 활용한 주요 국가별 비교분석*. 2017 기업가정신 기획연구 데이터 기반의 기업가정신 생태계 연구. 서울: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 문성배·전현배(2008). 기술혁신활동의 고용효과에 관한 실증 분석: ICT 기업과 비 ICT 기업의 비교를 중심으로. *산업조직연구*, 16(1), 1-24.
- 박원우·고수경(2005). 다수준분석의 절차와 방법: WABA 를 중심으로. *경영논집*, 39(1), 59-90.
- 손성철·정범구·주지훈(2013). 조직 연구에서 다층모형 적용에 관한 고찰: 위계적 선형모형 (HLM) 활용을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연구*, 20(3), 75-97.
- 심연수·서정해·박은미(2021). IT 스타트업의 전략적 지향성과 성과에 관한 연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향성 조절효과. *벤처창업연구*, 16(1), 127-138.
- 엄현정·양영석·김명숙(2021). 기술창업기업의 기업가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6(2), 19-34.
- 윤병선·서영욱(2016). 창업기업의 혁신전략과 혁신문화가 역동적 역량과 기술적 역량을 통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1(3), 45-67.
- 윤종록·김형철(2009). 벤치기업의 창업가특성과 차별화전략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2(6), 3693-3721.
- 이민화(2015).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 요약, 경제와 창업활성화 전략. *선진화 정책시리즈*, 254-268.
- 이윤재(2005). 창업활동이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가?. *산업경제연구*, 18(2), 653-671.
- 이윤준·나청호·이화진(2014).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형 창업활성화 전략. *정책연구*, 1-208.
- Acemoglu, D., Aghion, P., & Zilibotti, F.(2006). Distance to frontier, selection,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4(1), 37-74.
- Acs, Z. J., Desai, S., & Hessels, J.(2008). Entrepreneurship, economic development and institutions. *Small business economics*, 31(3), 219-234.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ldrich, H.(1999). *Organizations evolving*. London: Sage
- Ali, A., Kelley, D. J., & Lee, C.(2017). Do You See What I See? Growth Intentions as a Function of Personal Resources and Opportunity Perceptions. *Kindai management review*, 5, 60-77.
- Anwar ul Haq, M., Usman, M., Hussain, N., & Anjum, Z. U. Z.(2014). Entrepreneurial activity in China and Pakistan: a GEM data evidence. *Journal of Entrepreneurship in Emerging Economies*, 6(2), 179-193.
- Arenius, P., & Minniti, M.(2005). Perceptual variables and nascent entrepreneurship. *Small business economics*, 24(3), 233-247.
- Autio, E., & Pathak, S.(2010). Entrepreneur's exit experience and growth aspiration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30(5), 2.
- Bandura, A.(2001). Social cognitive theory: An agentic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1-26.
- Baum, J. R., & Locke, E. A.(2004). The relationship of entrepreneurial traits, skill, and motivation to subsequent venture growth.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9(4), 587.
- Beaver, G., & Prince, C.(2002). Innovation, entrepreneurship and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entrepreneurial venture.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9(1), 28-37.
- Bosma, N., & Schutjens, V.(2009). Mapping entrepreneurial activity and entrepreneurial attitudes in European reg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7(2), 191-213.
- Branzei, O., & Vertinsky, I.(2006). Strategic pathways to product innovation capabilities in SM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1(1), 75-105.
- Cacciotti, G., & Hayton, J. C.(2015). Fear and entrepreneurship: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Reviews*, 17(2), 165-190.
- Cacciotti, G., Hayton, J. C., Mitchell, J. R., & Giazitzoglu, A. (2016). A reconceptualization of fear of failure in entrepreneurship.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1(3), 302-325.
- Çakar, N. D., & Ertürk, A.(2010). Comparing innovation capability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examining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empowerment.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8(3), 325-359.
- Carsrud, A., & Brännback, M.(2011). Entrepreneurial motivations: what do we still need to know?.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9(1), 9-26.
- Cassar, G.(2006). Entrepreneur opportunity costs and intended venture growth.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1(5), 610-632.
- Conroy, D. E., Willow, J. P., & Metzler, J. N.(2002). Multidimensional fear of failure measurement: The 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4(2), 76-90.
- Daft, R. L.(2004). *Organization Theory and Design*. Thomson South-Western, Mason, OH.
- Davidsson, P.(1991). Continued entrepreneurship: Ability, need, and opportunity as determinants of small firm growth.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6(6), 405-429.
- Davidsson, P.(1995). Culture, structure and regional levels of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7(1), 41-62.
- Davidsson, P., & Wiklund, J.(2006). Conceptual and empirical challenges in the study of firm growth. *Entrepreneurship and the Growth of Firms*, 1(1), 39-61.
- Delmar, F., & Wiklund, J.(2008). The effect of small business managers' growth motivation on firm growth: A longitudinal stud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 Practice*, 32(3), 437-457.
- Drucker, P. F.(2002). The discipline of innov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80, 95-104.
- Dutta, D. K., & Thornhill, S.(2008). The evolution of growth intentions: Toward a cognition-based model.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3(3), 307-332.
- Fagerberg, J.(2005). *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 Flores-Romero, M. G.(2004), *Is Entrepreneurship More about Sticking with a Firm, or about Running Several of Them? Evidence from Novice and Serial Entrepreneurs*. Paper presented at the Industrial Economics Workshop, March 2004, University of Warwick.
- Garcia, R., Calantone, R., & Levine, R.(2003). The role of knowledge in resource allocation to exploration versus exploitation in technologically oriented organizations. *Decision Sciences*, 34(2), 323-349.
-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2018). *GEM 2017/2018 global report*, London,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 Gilbert, B. A., McDougall, P. P., & Audretsch, D. B.(2006). New venture growth: A review and extension. *Journal of management*, 32(6), 926-950.
- Goedhuys, M., & Sleuwaegen, L.(2010). High-growth entrepreneurial firms in Africa: a quantile regression approach. *Small Business Economics*, 34(1), 31-51.
- Gómez-Araujo, E., Lafuente, E., Vaillant, Y., & Gómez Núñez, L. M.(2015). The differential impact of self-confidence, reference models and the fear of failure in young entrepreneurs. *Innovar*, 25(57), 157-174.
- Gray, C.(2006). Absorptive capacity, knowledge management and innovation in entrepreneurial small firm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12(6), 345-360.
- Gries, T., & Naudé, W.(2010). Entrepreneurship and structural economic transformation. *Small Business Economics*, 34(1), 13-29.
- Hamel, G.(2002). Innovation now!(It's the only way to win today). *Fast company*, 65, 114-114.
- Hayton, J. C., George, G., & Zahra, S. A.(2002). National culture and entrepreneurship: A review of behavioral research.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6(4), 33-52.
- Hermans, J., Vanderstraeten, J., Van Witteloostuijn, A., Dejardin, M., Ramdani, D., & Stam, E.(2015). Ambitious entrepreneurship: A review of growth aspirations, intentions, and expectations. *Entrepreneurial growth: Individual, firm, and region*.
- Hessels, J., Van Gelderen, M., & Thurik, R.(2008). Entrepreneurial aspirations, motivations, and their drivers. *Small Business Economics*, 31(3), 323-339.
- Hitt, M. A., Ireland, R. D., Camp, S. M., & Sexton, D. L. (2001). Strategic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strategies for wealth crea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2(6-7), 479-491.
- Hult, G. T. M., Hurley, R. F., & Knight, G. A.(2004). Innovativeness: Its antecedents and impact on business performance.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33(5), 429-438.
- Hyytinen, A., Pajarinen, M., & Rouvinen, P.(2015). Does innovativeness reduce startup survival rat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0(4), 564-581.
- Johannessen, J. A., Olsen, B., & Lumpkin, G. T.(2001). Innovation as newness: what is new, how new, and new to whom?. *European Journal of innovation management*, 4(1), 20-31.
- Kang, J. Y.(2017). *Scale-up of Startups for Job Creation and Implications*. Weekly KDB Report.
- Kelley, D. J., & Rice, M. P.(2002). Advantage beyond founding: The strategic use of technologi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7(1), 41-57.
- Kenny, D. A., Kashy, D. A., & Cook, W. L.(2006). *Dyadic data analysis*. New York: Guilford Press.
- Kim, H. J., Min, T. K., Wang, J., Schüller, D., & Oh, K. Y.(2020). Seeking for the Determinants of Entrepreneurship from National Level Data.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6), 55-65.
- Kim, S. J., Han, J. H., & Lee, S. M.(2016). The Effects of Fear of Failure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Startup Business Candidat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3), 49-61.
- Kollmann, T., Stöckmann, C., & Kensbock, J. M.(2017). Fear of failure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bstacles and nascent entrepreneurial activity: An experimental approach.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2(3), 280-301.
- Kyläheiko, K., Jantunen, A., Puumalainen, K., Saarenketo, S., & Tuppura, A.(2011). Innov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as growth strategies: The role of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appropriability.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20(5), 508-520.
- LeBrasseur, R., Zanibbi, L., & Zinger, T. J.(2003). Growth momentum in the early stages of small business start-ups.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21(3), 315-330.
- Lee, M. H.(2015). Summary of Community Liberalism Seminar, Strategies for Economic and Entrepreneurship Revitalization. *Evolutionary Policy Series*, 254-268.
- Lee, Y. J.(2005). Has Entrepreneurial Activities Promoted Growth?: Theory and Evidence from Cross-country Analysi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18(2), 653-671.
- Lee, Y. J., Na, C. H., & Lee, H. J.(2014). *Startup Activation Strategies for Corporate Partnership*. *Policy Research*, 1-208.
- Loewenstein, G. F., Weber, E. U., Hsee, C. K., & Welch, N.(2001). Risk as feelings. *Psychological bulletin*, 127(2), 267-268.
- Lumpkin, G. T., & Dess, G. G.(2001). Linking two dimensions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to firm performance: The moderating role of environment and industry life cycl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6(5), 429-451.
- Macaulay, C.(2003). Changes to self-employment in the UK: 2002 to 2003. *Labour market trends*, 111(12), 623-628.
- Manolova, T. S., Brush, C. G., Edelman, L. F., & Shaver, K.

- G.(2012). One size does not fit all: Entrepreneurial expectancies and growth intentions of US women and men nascent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24(1-2), 7-27.
- Martin, X., & Salomon, R.(2003). Knowledge transfer capacity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theory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4(4), 356-373.
- McClelland, E., Swail, J., Bell, J., & Ibbotson, P.(2005). Following the pathway of female entrepreneurs: A six-country investig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11(2), 84-107.
- McKelvie, A., & Wiklund, J.(2010). Advancing firm growth research: A focus on growth mode instead of growth rat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4(2), 261-288.
- McMullen, J. S., & Dimov, D.(2013). Time and the entrepreneurial journey: The problems and promise of studying entrepreneurship as a process.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50(8), 1481-1512.
- Minniti, M., & Nardone, C.(2007). Being in someone else's shoes: the role of gender in nascent entrepreneurship. *Small Business Economics*, 28(2), 223-238.
- Mitchell, J. R., & Shepherd, D. A.(2011). Afraid of opportunity: the effects of fear of failure on entrepreneurial action.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31(6), 195-209.
- Morgan, J., & Sisak, D.(2016). Aspiring to succeed: A model of entrepreneurship and fear of failur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1(1), 1-21.
- Mueller, S., Volery, T., & von Siemens, B.(2012). What Do Entrepreneurs Actually Do? An Observational Study of Entrepreneurs' Everyday Behavior in the Start-Up and Growth Stage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6(5), 995-1017.
- Mun, S. B., & Chun, H. B.(2008). The Effects of Innovation Activities on Employment: Evidence from Korean ICT Firms.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16(1), 1-24.
- Nam, J. M.(2017). *A Study on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Ecosystem Perception by Startup Stage: Comparative Analysis by Major Country Using GETR*. 2017 Entrepreneurship Research Data-based Entrepreneurship Ecosystem Study. Seoul: Koef.
- Nijssen, E. J., & Frambach, R. T.(2000). Determinants of the adoption of new product development tools by industrial firms.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29(2), 121-131.
- Park, W. W., & Ko, S. K.(2005). Procedures and Methods of Multilevel Analysis: With a Focus on WABA. *The Korean business journal*, 39(1), 59-90.
- Schumpeter, J. A.(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n inquiry into profits, capital, credit, interest, and the business cycle. *Social Science Electronic Publishing*, 25(1), 90-91.
- Shim, Y. S., Seo, J. H., & Park, E. M.(2021). A Study on the Strategic Orientation and the Performance of IT Startups : The Moderating Effe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rient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6(1), 127-138.
- Simpson, P. M., Siguaw, J. A., & Enz, C. A.(2006). Innovation orientation outcomes: The good and the bad.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9(10-11), 1133-1141.
- Son, S. C., Jung, B. G., & Joo, J. H.(2013). A Study on Multi Level Model in Organization Research: Based on Hierarchical Linear Mode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20(3), 75-97.
- Stam, E., Hartog, C., Van Stel, A., & Thurik, R.(2011). Ambitious entrepreneurship, high-growth firms and macroeconomic growth. The dynamics of entrepreneurship: *Evidence fro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data*, 231-249.
- Stam, E., & Wennberg, K.(2009). The roles of R&D in new firm growth. *Small Business Economics*, 33(1), 77-89.
- Szirmai, A., Naudé, W., & Goedhuys, M.(2011). *Entrepreneurship, inno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 Taylor, M. Z., & Wilson, S.(2012). Does culture still matter?: The effects of individualism on national innovation rat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7(2), 234-247.
- Ucbasaran, D., Westhead, P., & Wright, M.(2009). The extent and nature of opportunity identification by experienced entrepreneu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4(2), 99-115.
- Um, H. J., Yang, Y. S., & Kim, M. S.(2021). The Effects on the Performance of High-tech Startups by the Entrepreneurial Competenc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6(2), 19-34.
- Valliere, D., & Peterson, R.(2009).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emerging and developed countries.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21(5-6), 459-480.
- Vaillant, Y., & Lafuente, E.(2007). Do different institutional frameworks condition the influence of local fear of failure and entrepreneurial examples over entrepreneurial activity?.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19(4), 313-337.
- Van Gelderen, M., Kautonen, T., & Fink, M.(2015). From entrepreneurial intentions to actions: Self-control and action-related doubt, fear, and avers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0(5), 655-673.
- West, T. V., & Kenny, D. A.(2011). The truth and bias model of judgment. *Psychological Review*, 118(2), 357-378.
- Wiklund, J., & Shepherd, D.(2005).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small business performance: a configurational approach.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0(1), 71-91.
- Wood, M. S., McKelvie, A., & Haynie, J. M.(2014). Making it personal: Opportunity individuation and the shaping of opportunity belief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9(2), 252-272.
- Wong, P. K., & Lee, L.(2005). *Antecedents for entrepreneurial propensity in Singapore(WP 2005-12)*, Singapore, NUS Entrepreneurship Centre Working Papers.
- Yoon, B. S., & Seo, Y. W.(2016). Effects of Start-up's

Innovation Strategy and Innovation Culture on Performance through Dynamic Capability and Technical Cap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1(3), 45-67.

Yun, J. R., & Kim, H. C.(2009). The Effect of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and Differentiation Strategy on Performance of Venture Business.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2(6), 3693-3721.

Zali, M. R., Faghih, N., Ghotbi, S., & Rajaie, S.(2013). The effect of necessity and opportunity driven entrepreneurship on business growth. *International Research Journal of Applied and Basic Sciences*, 7(2), 100-108.

A Study on the Effect of Startup's Innovation Orientation on Growth Aspiration

Oh, Hyemi*
Lee, Chaewon**
Kim, Jinsoo***

Abstract

Innovation and Scale-up of Start-up companies are becoming important national tasks. In the past, it was spread the start-up policy paradigm such as 'Start-up America', 'Start-up Chile', 'Start-up Britain' to overcome the recession globally. However as the economic recovery has become more visible recently in advanced economies, it is shifting from a start-up support policy to a scale-up oriented policy paradigm such as 'Scale-up America', 'Scale-up UK', 'Scale-up Denmark'. It is necessary to enter the scale-up phase beyond the start-up phase to increase the number of high-quality jobs and to continue economic growt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row the start-up into a strong medium-sized company and to lay the foundation for survival.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antecedent factors that influence the scale-up aspiration for the start-up firm to grow into a scale-up company, and empirically identifi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entrepreneurs in the country.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this study predicted scale-up by aspiration which is a predictor of scale-up behavior because it is difficult to achieve visible growth in a short period of tim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start-up companies.

In order to empirically explore these relationship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nascent entrepreneurs who have less than 3.5 years of the Adult Population Survey(APS) among the subjects surveyed by the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GEM) and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stage are divided into Innovation-driven, Efficiency-driven, Factor-driven type economies. For the test hypotheses, this study adopted the multi-level model analysis for comparison between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stages and using the R 3.5.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re is difference between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entrepreneu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orientation of entrepreneurs and scale-up aspirations. As the economy of the country develops, the innovation activity of the entrepreneur becomes more active. Since start-ups are heavily influenced by entrepreneurs,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degree of aspiration depending on how innovative an entrepreneur is in the same environment.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orientation and scale-up aspiration, the fear of failure was found to differ between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entrepreneurs. The fear of failure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and this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activities. It is expected that the factors influencing the growth of the start-up companies which are identified through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will be used to create a suitable scale-up ecosystem according to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stage.

KeyWords: Startup, Innovation orientation, Growth aspiration, Fear of fail, Multi-level analysis

* First Author, Visiting Professor, Sejong University, hyemioh@ssejong.ac.kr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hlee@seoultech.ac.kr

*** Co-author,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sunny@cau.ac.kr